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0일 화요일 음 9월 4일 (11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14~15°C, 낮 최고 기온은 22~23°C로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Humidity (강수 확률) for various locations (제주, 성산, 고산, 서귀포).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 일몰, 안개) and Duration (시간).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호리고비, 구름 많음) with temperature.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생활·안전) and Value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월드뉴스

14개월 만에 돌아온 홍콩 민주운동가

“중국에 구금·심문 당했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사라졌던 64세의 여성이 14개월 만에 나타나 지난 1년간 중국에 구금됐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홍콩에서 연 기자회견서 “중국에 구금됐었다”고 밝히는 알렉산드라 웡.

19일 홍콩 매체에 따르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알렉산드라 웡은 지난 17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접경지대 검문소에서 체포된 후 1년 이상 선전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갇혀 있었다고 밝혔다.

오성흥기 앞에서 몇시간 동안 계속해서 있도록 했으며, 이후 산시성으로 5일간 ‘애국심 고취 여행’을 떠나 오성흥기를 흔들며 중국 국기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해야 했다고 밝혔다.

웡은 “검문소에서 경찰이 나를 큰방으로 데려가 수색한 후 푸젠구 경찰서로 이송해 심문하고, 시위활동에 참여한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조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웡의 증언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불투명한 사법체제에 대한 생생한 묘사”라며 “많은 홍콩인이 자신들에게도 곧 닥칠 일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보도했다.

그는 푸젠 구금시설에 15일간 갇혀 있었고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겨져 30일간 형사 구금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자신을 중국 국기인

원은 1년간 선전에 머무른다는 조건하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달 말에야 해제돼, 그는 지난 2일 홍콩으로 왔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송창우 농부

일을 대충 마친 가을의 오후. 태양이 남서쪽으로 기울어 큰 삼나무에 걸리기 전에 일을 접는다. 폐를 튼튼하게 하며 기침을 멎게 한다는 도라지...

고개를 들고 가을 하늘을 보자

터에는 가을과 함께 피어난 역새가 불어오는 바람결에 파도타기를 하고, 길 옆 옹벽을 가렸던 담쟁이도 붉게 물들었다. 어디 이뿐인가. 한 달 전쯤인가에는 7년을 땅속에서 생활하다 일주일의 여행을 마친 때가...

울을 터트리며 소생의 기적을 목격하고, 성장의 드라마를 썼던 여름을 거쳐 영감과 수확,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기침과 재치기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마스크를 받드시 써야 하는 물리적 답답함도 있지만 팬데믹, 언택트, 플랫폼 등...

목격하며 신경질적으로 울어대다가 그 상황이 끝나면 평온하게 다시 풀을 뜯는 것과 같다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할 뿐이다. 다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기에 연대가 필요한데 말이다. 함께 살아야 하는 게 인간의 속명이다. 이 속명에는 평등이라는 사회정의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열린마당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



김상현 제주시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외환 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환란 와중에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한국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이다.

산을 가진 1촌 직계 혈족(부모, 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사실 부양의무자 중에선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이 제도 때문에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펫티켓’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고경학 제주시 도드둥주인센터

“여기 공원인데요, 반려견과 운동하는 주민이 배변봉투를 쓰지 않고 배설물을 방치한 채 떠나고 있어요.” “올레길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큰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인과 다니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등에서 반려견의 배변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펫티켓’ 의식이 아직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펫티켓’이란 애완동물(pet)과 예의범절(Etiquette)을 뜻하는 합성어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로 산책 시 목줄과 인식표, 배변봉투 등을 지참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개는 인간과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려동물 전성시대인 요즘, 반려견 인구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반려견과 여행도 증가할 것이고, 반려견과 관련된 갈등, 사건사고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상반된 두 입장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려견 외출 시에는 꼭 목줄과 배변봉투, 입마개 등을 챙겨 ‘펫티켓’을 지키는 아름다운 반려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featuring product image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onghyup Farm Kos-teck Fertilizer Co., Ltd.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featuring a large headline, product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 Potra Jeju Branch.